

1/4분기에 새 에이즈 감염인 141명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141명이 신규로 에이즈에 감염되어 현재 누적 감염인수는 총 3,2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감염인 중 651명이 사망하여 현재까지 2,643명이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1/4분기 신규 감염인은 2002는 75명, 2003년 115명, 2004년 139명으로 2003년 크게 급증하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로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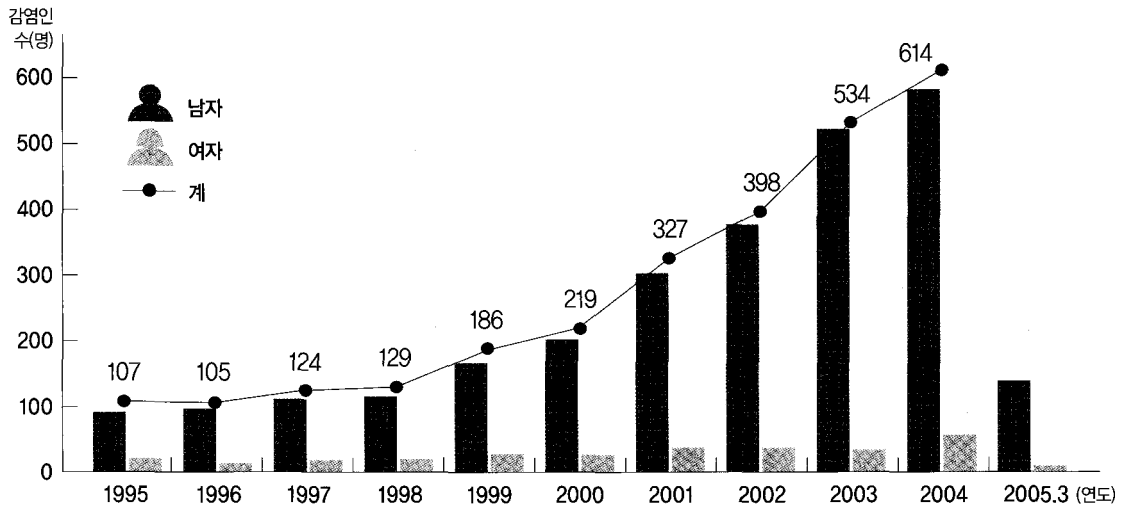
신규 감염인 중 남성은 133명, 여성은 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무려 16.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기

존과 마찬가지로 30대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전까지 40대, 20대가 순으로 신규 감염인이 많았으나 올해는 50대 33명(23.4%), 40대 31명(22.0%), 20대 21명(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인 7명이 보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국에 11개소의 에이즈상담소를 운영하여 에이즈 검사를 활성화하고, 에이즈 예방책인 콘돔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도별 내국인 에이즈 감염 현황 (2005년 3월말 현재)



구분	계	1985~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3
계	3,294	410	10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614	141
남자(명)	2,968	365	88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560	133
여자(명)	326	45	19	12	17	18	26	25	35	35	32	54	8

(자료 : 질병관리본부)